

현대 한국 천주교회의 종교간 대화 - 김수환 추기경과 김몽은 신부를 중심으로* -

박 일 영

가톨릭대학교 종교학과

〈요 약〉

문화 간 소통과 종교 간 화합의 과제는 최종적으로 종교와 문화의 경계를 넘나드는 보편적인 신앙의 희망이 제시하는, 온 인류를 묶어주는 바른 실천(ortho-praxis)으로 나아가는 ‘신앙의 육화’(肉化 incarnatio fidei)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나와 너 쌍방이 모두 변하게 된다. 이와 같은 개방적 사명 의식을 특정 종교의 일방 선교(one-way mission)를 넘어선 종교들 상호 간의 호혜적인 “쌍방 선교”(mutual mission)라고 부를 수도 있다. 그 때 비로소 문화 간 소통과 종교 간 화합은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들이 현대 한국의 천주교회라는 맥락에서는 어떻게 인식되고 실천이 시도되었는지를 살펴본다. 특히 현대 한국 천주교회를 대표하는 인물인 김수환 추기경과 그와 동시대인으로서 종교간 대화와 협력에 남다른 사명감을 갖고 실질적으로 평생을 투신한 김몽은 신부를 통하여 들여다보고자 한다.

핵심주제어: 김수환 추기경, 김몽은 신부, 현대 한국천주교회, 종교간 대화, 쌍방 선교

I. 한국 천주교회와 종교간 대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의 종교, 하나의 신앙만이 절대적 타당성을 지니는 단색적인 세계가 아니라 여러 가지 신앙 형태들이 형형색색의 꽃을 피우는 다양성의 시대이다. 즉 다종교 공존의 시대이다. 이웃종교들과의 만남이 없이는 특정 종교의 진리 이해

* 본 연구는 2014년도 가톨릭대학교 교비연구비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역시 불완전해진다는 것을 자각하는 곳에서 종교 간의 대화와 협력이 시작된다. 가톨릭 신자 어머니와 힌두교도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종교학자 파니카(1918~2010)는 이와 같은 자각과 인식을 ‘종교 내의 대화’(intra-religious dialogue)¹⁾라고 부른다. 그래서 대화는 종교 간 진정한 만남과 협력에 있어서 방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탁월한 종교적 행위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종교에 있어서 선교(mission)는 여전히 중요한 주제가 된다. 그러나 선교의 내용과 방법은 시대에 따라 차이가 있다. 현대 그리스도교 선교는, 교세 확장이라는 관심사에 집중하던 과거와 비교한다면, 그리스도교의 메시지와 비-그리스도교적인 환경 사이의 열린 만남을 추구하려는 자세를 바람직한 선교의 모델로 꼽고 있다. 그리스도교는 이러한 정황을 묘사하기 위하여 문화순응(inculturation) 내지는 문화적응(acculturation)²⁾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가톨릭에서는 1977년 로마에서 개최된 제4차 세계주교대의원대회(episcopal synod) 문헌의 제 5항과 제 10항에서 문화순응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비로소 처음으로 공식적인 용어로 채택되었다. 개별 문화가 지닌 정체성과 신빙성이 특별히 존중되었다. 그럼으로써 17세기와 18세기 중국에서의 ‘전례논쟁’(Rites Controversy)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럽의 관습을 비 서구지역에 수출하겠다는 식의 ‘일방적 전도’라는 태도는 수그러들게 되었다. 그 대신 신앙을 특정한 문화 환경의 고유한 맥락 안에 육화 혹은 구체화(肉化/具體化 incarnation)시키려는 일련의 과정이 문화 간 소통과 종교 간 화합의 과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인간이 삶을 영위해가는 모습에 있어서 다양성 내지는 다원성을 인정하고 의식하게 될 때에, 특정 종교는 서로 다른 맥락이나 지역적 특수성을 인식하고 인정하게 된다. 이렇게 종교적 다양성과 보편성에 대하여 균형 잡힌 자세를 갖추게 되면, 산업문화를 통한 국제적인 균형을 추구하게 될 뿐 아니라, 평화실현과 생태계의 보전, 기아와 고문의 퇴치 등 인류 공통의 가치를 구현하는 목적을 향하여 다양한 종교들이 함께 보조를 맞추어 나아가게 한다. 그러한 자세는 프랑스의 가톨릭 신학자 이브 콩가르(1904~1995)의 말처럼 “질적인 가톨릭신앙(catholicité qualitative)”³⁾으로 나아가게 하는 지름길이다.

그러한 자세는 바로 외형만의 경직된 신앙, 안주하는 신앙의 소극적인 경계를 넘어서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별적인 문화 간 소통과 종교 간 화합은 그 자체로 완결되는 작업이 아니다. 문화 간 소통과 종교 간 화합의 과제는 최종적으로 종교와 문화의 경계를 넘나드는 보편적인 신앙의 희망이 제시하는, 온 인류를 묶어주는 바른 실천(ortho-praxis)으로

1) Raimundo Panikkar, *Intra-Religious Dialogue*, 김승철 역, 『종교 간의 대화』(서울: 서광사, 1990), 원본 제목 참조.

2) 박일영, 『문화순응, 문화적응』, 『가톨릭대사전』5(서울: 한국교회사연구소, 1997), 2870-2872쪽 참조.

3) Yves Congar, “Theologische Grundlagen”, in: Johannes Schütte, *Mission nach dem Konzil*(Mainz, 1967), p. 134.

나아가는 ‘신앙의 육화’(肉化 incarnatio fidei)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나와 너 쌍방이 모두 변하게 된다. 이와 같은 개방적 사명 의식을 특정 종교의 일방 선교(one-way mission)를 넘어선 종교들 상호 간의 호혜적인 “쌍방 선교”(mutual mission)⁴⁾라고 부를 수도 있다. 그 때 비로소 문화 간 소통과 종교 간 화합은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이 현대 한국의 천주교회라는 맥락에서는 어떻게 인식되고 실천이 시도되었는지를 살펴본다. 특히 현대 한국 천주교회를 대표하는 인물인 김수환 추기경(1922-2009)과 그와 동시대인으로서 종교간 대화와 협력에 남다른 사명감을 갖고 투신한 김봉은 신부(1927-2004)를 통하여 들여다보고자 한다.

II. 김수환(金壽煥) 추기경과 이웃종교

1981년도 어느 일간지에 게재된 김추기경의 자전적 글은 그의 인간적인 풍모를 솔직하게 드러내 보이고 있다.

“그날따라 대구 계산동 대성당의 종소리는 유난히 성스럽게 울려 퍼졌다. 많은 신도들과 선배 신부들의 파스한 눈길을 받으며 나는 로만 칼라 위에 수단,⁵⁾ 다시 그 위에 회고 긴 장백의(長白衣)⁶⁾ 차림으로, 왼손에 제의를 걸친 채 발소리를 죽여 사제서품식을 집전하는 최덕홍⁷⁾ 주교님 앞으로 걸어 나갔다. 십자가도 그날따라 유난히 뚜렷하게 시야에 들어왔고 최 주교님의 목소리도 그날따라 유난히 엄숙했다. 어머니, 그해 69세이셨던 어머니는 ‘자식이 신부가 되는 게 소원’이었던 당신의 꿈이 이루어지는 가슴 벅찬 순간을 맨 앞자리 마룻바닥에 꿰어앉은 채 지켜보고 있었다.[중략]. 충남 연산(連山)이 고향이던 할아버지 보현(甫鉉)씨는 독실한 신자로 병인년 교난(1866~1868) 때 잡혀 충남 덕산(德山) 근처에서 교수형을 당해 순교하셨고, 아버지 영석(永錫)씨는 그 유복자였다. 그렇게 태어난 아버지도 천주교를 뿌리치지 못한 채 당시 박해를 받던 많은 신도들이 그러했듯이 웅기장수로 변신해 전전하다가, 대구의 처녀 서중하(어머니)와 결혼한 뒤 웅기터를 경북으로 옮겨 생계를 꾸렸으나 장사가 잘 안 돼 이곳저곳으로 전전은 했어도 한순간도 천주교를 떠난 적은 없었다고 한다.[중략].

아무튼 신부수업을 했으면서도, 그리고 신부가 무한한 동경의 대상이었으면서도 나는 ‘신부가 되겠다.’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해방 후 귀국하여 만나 뵈 대구 남산동성당 장병화 신부님(1912-1990)⁸⁾은 바로 그 부분에 대해 내게 결정적인 조언을 해 주신 분이다. ‘신부로서는 부적당

4) R. 프리들리, 박일영 역, 『현대의 선교 - 선교인가 반선교인가』(서울: 성바오로출판사, 1989), 153-160 쪽 참조.

5) 천주교 성직자들이 평상복으로 입는 로만 칼라가 있고 앞에 단추가 30-40개 달린 발목까지 닿는 검은 색의 긴 옷.

6) 사제가 미사 때 개두포(蓋頭布. 미사 집전 시 가장 먼저 착용하는 아마포로 된 장방형의 흰 천) 위에 입는 발끝까지 내려오는 흰색의 긴 옷.

7) 崔德弘 세례자 요한(1902-1954). 제5대 천주교 대구교구장(1948. 12-1954. 12).

하다’는 나의 고민을 듣고 난 장 신부님은 ‘바로 그 점,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너는 신부 될 자격이 있는 것이고 꼭 신부가 돼야 한다.’는 것이었다.[중략]. 올해(1981)로써 신부가 된 지 30년이 되었다. 그 30년 동안 나는 무엇을 했는가? 30년의 연륜만큼 거룩하게 됐는가? 신부가 되기 전에 그랬듯이 여기에 대한 대답 역시 ‘아니다’이다. 거룩하게 되었기보다는 오히려 때 묻은 30년이요, 그러기에 나는 지금도 무릎을 꿇고 엎드려 주님께 용서를 비는 것이다.”⁹⁾

김수환 추기경은 선종 이후 5년 반이나 지난 최근의 사회조사¹⁰⁾에서도 여전히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인으로 꼽히고 있을 만큼 한국종교사에 큰 획을 그은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그의 업적 중에서 종교간 대화와 협력이라는 영역에만 국한하여 그의 발자취를 살펴보고자 한다.

1. 김수환추기경과 그리스도교 일치운동

“우리 크리스찬의 사명은 무엇인가? 보다 밝고 보다 나은 사회 건설, 나라 건설에 힘을 기울이는 일이다. 동포 중에 아무도 소외됨 없이, 버림받은 사람 없이 모두가 한 핏줄, 한 민족이라는 의식, 더 나아가 형제적 유대로 맺어진 진리와 정의와 자유의 나라가 건설되기를 회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크리스찬은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우리 서로를 갈라놓는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는 데 모두가 힘을 합해야 한다. 교파가 어떻다, 종파가 어떻다, 혹은 너의 단체, 나의 단체를 가리고 구별하고 다룰 때가 아니다.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크리스찬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정신과 그 마음, 그 사랑에 살아야 한다. 모든 이를, 온 사회를, 온 세계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포용할 줄 알아야 한다. 장벽을 만들고 있는 일체의 장애, 특히 사회적인 장애, 빈부의 격차 등을 솔선수범하여 제거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¹¹⁾

1972년, 대통령 부인도 참석한 한국 YWCA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여 연설한 기념사에서는 「새 시대를 향한 기독교인의 참여」에 대하여 말하면서, 약자와 젊은 세대를 위한 형제애의 실천이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빛이 될 것¹²⁾이라고 역설하였다. 그런가 하면 다른 기회에 YWCA에서 행한 강연에서도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위하여 함께 해야 할 과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8) 1912년 대구 출생, 1932-1938년 대구 유스티노 신학교에서 수학, 1938년 사제서품, 1954-1956년 벨기에 루벡 대학교에서 사회학 전공, 1968년부터 제2대 마산교구장 주교 역임.

9) 『지금도 주님께 무릎 꿇어 용서를 빈다』, 《중앙일보》, 1981년 9월 22일자, 김수환추기경 전집 편찬위원회 편, 『김수환추기경 전집』(서울: 가톨릭신앙생활연구소, 2001), 17-7. 이하 『전집』으로 표기.

10) 주간 『시사저널』이 국내 전문가 1,000명을 대상으로 미디어리서치와 공동으로 매년 실시하는 설문조사 결과. 《가톨릭뉴스》, 2014년 8월 23일자. <http://www.cathnewskorea.com> [접속: 2014년 8월 24일].

11) 「한국 크리스찬의 사명」, 메모, 1971, 『전집』, 8-2.

12) 「YWCA 창설 50주년 기념사」, 《가톨릭시보》, 1972년 4월 30일자, 『전집』, 9-2.

“새 시대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는 모두 같은 인간이다. 모두 인간으로서의 자유와 평등, 우애를 누리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크리스찬적인 정신을 불어넣고 세례를 주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두 형제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모두 형제이다’라고 하였고, 사도 바울로는 이 정신을 받아 ‘우리는 모두 형제이다’라고 했습니다.[중략].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위험과 도전에 직면할지라도 이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근본은 ‘우리는 모두 하나이신 하느님 아버지의 자녀들이고, 그 때문에 모두 서로 형제이다’라는 데 있고 이것을 이룩하는 것, 즉 형제애를 펴 나가는 것이 우리의 근본 사명이기 때문입니다.”¹³⁾

1985년 장로교 신학대학에서 개최된 제8차 아시아 그리스도교연합회(CCA)에서는 그리스도교의 일치와 화합에 대하여 역설하였다.¹⁴⁾ 1989년 8월 16일,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세계개교회연맹 제22차 총회에서는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크리스찬 신앙” 안에서 모두가 일치되어 어떻게 하면 하느님을 잘 섬길 수 있는지 이런 공통의 관심사에 대하여 생각하고 나누는 기쁨을 누리자고 축사를 하였다.¹⁵⁾ 1994년 5월 연세대학교가 명예 신학박사를 수여하자, 김추기경은 진심으로 감사를 표한 후에 “그리스도의 열린 정신으로” 교회일치와 종교 간 대화와 평화를 위하여 함께 하자고 초대한다.¹⁶⁾ 대한성공회 이천환 주교의 주교서품 30주년을 축하하는 기회에는 가톨릭의 종교 간 대화운동을 학술적으로 조명한 본격적인 논문을 내놓기도 하였다.¹⁷⁾

2. 김수환추기경과 전통종교의 관계

김추기경은 불교 관계자들과 스스럼없이 돈독한 관계를 맺었다. 불교방송국의 개국을 축하하고,¹⁸⁾ 부처님 오신 날에는 축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¹⁹⁾ 불교방송의 특정 프로그램 100회 특집과 관련하여서는 기꺼이 방송 인터뷰를 하기도 하였다.

13) 『그리스도인의 희망과 사명』, YWCA 강연?, 1975, 『전집』, 8-2.

14) 『그리스도교의 일치와 화합』, 제8차 아시아 그리스도교연합회, 장로교신학대학, 1985.년 6월 26일, 『전집』, 9-9.

15)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크리스찬 신앙』, 세계교회연맹 제22차 총회 축사, 연세대학교, 1989년 8월 16일, 『전집』, 2-4.

16) 『그리스도의 열린 정신으로』, 명예 신학박사 학위수여 답사, 연세대학교, 1994년 5월 14일, 『전집』, 17-7.

17) 『타 교파 및 타종교와의 관계 - 대한 성공회와 가톨릭을 중심으로』, 이천환 주교 서품 30주년 기념논문, 1995년 1월 31일, 김수환추기경연구소 편, 『김수환추기경연구』1(부천: 가톨릭대학교 김수환추기경연구소, 2014), 9-26쪽.

18) 『불교 방송국 개국을 축하하며』, 불교방송국 개국 축하메시지 방송녹음, 1990년 4월 19일, 『전집』, 9-9.

19) 『부처님의 자비』, 부처님 오신 날 축하메시지, 1993년 5월 28일, 『전집』, 9-9.

“정목 스님이 진행을 맡으신 ‘거룩한 만남’의 방송 100회를 맞이하여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특히 이 방송이 고통 받는 이웃에게 자비와 사랑의 손길을 지속적으로 펴온 데 대하여, 동시에 그 손길이 종교의 차별을 두지 않고 가난한 이면 누구에게나 고르게 미쳤던 데 대하여 우리 사회의 모든 이웃들의 이름으로, 정목 스님과 뜻을 함께하여 주신 분들에게 깊이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²⁰⁾

길상사의 개원을 맞이하여서는 범정 스님의 초대에 응하여 몸소 개원 범회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였다.²¹⁾ 이웃종교에 대한 김추기경의 개방적인 모습은 세간에도 화제가 되어 대중매체에 기사화되기도 하였다.²²⁾

또한 김수환추기경은 심산(心山) 김창숙(金昌淑)의 정신과 사상을 연구하는 심산사상연구회로부터 2000년도에 심산상(心山賞)을 수상한 기회에 행한 강연에서 ‘유교와 천주교의 만남’을 통시적(通時的)으로 회고하면서 한국사회의 문화적 성숙을 위하여 두 종교가 함께 하는 길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김추기경 스스로도 유교 측으로부터 이러한 상을 수상하는 의미를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다.

“이 수상이 저 개인적으로 자격이 있어서 또는 무슨 훌륭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앞으로 더욱 심산 선생님을 본받아 여생을 민족과 인류를 위해 불태워 살라는 가르침이요 격려라고 해석되었습니다. 더욱이 종교적 민족적 차원에서 새로운 시대인 2천년대의 초두에, 또한 천주교회의 인류 구원의 대회년이라는 역사적 시점에서 볼 때 세계적 대종교인 두 종교 간에 과거의 갈등을 청산하고 화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여 두 종교의 존재 이유 곧 민족과 인류, 더 나아가 우주 만물의 생명을 살리는 데 함께 손을 잡고 매진해 나아가라는 하늘의 크신 뜻이요, 국민적 염원의 표상이라 생각합니다.”²³⁾

많은 이들이 여전히 기억하는 바와 같이, 김수환추기경은 김용옥 교수가 진행하는 공중파 텔레비전 방송에 출연하여 논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도 있다. 여기에서 김추기경은 유교와 그리스도교의 공통점으로 효(孝)를 들고 있다. 즉, 유교나 그리스도교가 조선조 말 극심한 대립을 하였으나, 사실 두 종교 모두 근본적인 공통점으로 효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대화와 협력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효를 실천하는 방도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다고 갈파하고 있다. 말하자면, 유교는 상향식 효의 실천방식을 채택하여 부모에 대한 효로부터 시작하여 하늘에 대한 효로 올라가는 반면에, 그리스도교는 하향식 효의 실천방식을 우선한다고 비교함으로써 김용옥 교수의 찬탄을 이끌어내었다.²⁴⁾

20) 『스님과의 거룩한 만남』, 불교방송 인터뷰, 1993년 4월 14일, 『전집』, 8-4.

21) 『맑고 향기로운 도량(道場)』, 성북동 길상사 개원 축사, 1997년 12월 14일, 『전집』, 9-9.

22) 『무소유의 정신』, 『Feel』, 1998년 1월호, 『전집』, 16-5.

23) 『유교와 천주교의 만남』, 심산상(心山賞) 수상 강연, 성균관대학교 600주년 기념관, 2000년 5월 23일, 『전집』, 17-7.

24) <도올의 논어 이야기>, <KBS1-TV>, 2001년 4월 24일자 참조.

3. 김수환추기경과 종교연합운동

1992년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종교지도자 초청 심포지엄’에서는 2000년대를 바라보는 시점에서도 여전히 개탄스러운 사회현실을 적시하면서, 종교인들이 솔선수범하여 정직하고 성실한 삶의 모범을 보이자고 제안한다. 평소 그의 지론인 성숙한 시민정신에 대한 관심이 또 다시 표명된 셈이다.²⁵⁾ 원불교에서 간행하는 잡지와 인터뷰에서도 여전히 인간 존엄성에 대한 그의 생각은 분명히 드러난다. 요지만 옮기자면 다음과 같다.

한국 사람에게 현재 제일 큰 가치는 돈이며, 이것을 얻기 위하여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 결과로 공직자를 비롯하여 사회 모든 분야, 심지어 교육자, 종교인에 이르기까지 돈으로 말미암은 부정부패에 걸리지 않는 곳이 거의 없다 싶을 만큼 부정이 만연해 있고 사기와 횡령 등이 매일 같이 일어나고 있다. 정직과 성실이 없고 양심이 마비되어 있는 것, 이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다. 참으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길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우리 마음이 돈이나 권력 등을 비롯하여 세상 물질에 대한 과욕을 버리고 마음의 자유를 누리게 되면, 그리고 생각을 올바르게 갖고 이웃을 더 위하고 사랑할 줄 알면, 그 중에서도 가난한 이웃, 고통 받는 이웃과 고통을 나누며 사랑과 자비를 베풀 줄 안다면 그런 삶이 가장 사람답게 사는 길이다.

21세기는 세계화와 정보화 시대라고 흔히 말한다. 정보 통신 기술의 획기적 발달로 이미 컴퓨터, 인터넷에서도 보듯이 누구나 정보에 쉽게 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외형적 정보통신 미디어를 통한 하나의 세계는 확실한 가치관, 진리와 정의, 인간 존엄성 존중과 참된 이웃 사랑이 있을 때에는 대단히 긍정적인 것이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할 때에는 무서운 속도로 인간과 인간 사회를 파괴하는 악을 전파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과 함께 세기말적 현상으로 종말론, 휴거 같은 사고, 뉴 에이지, 환생론 등에 의한 종교적 혼란도 더 심해질 염려가 있다. 그런데 이런 문제 앞에서 종교는 자기 방어를 위해서 경직된 원리주의에 빠질 염려도 있고, 그것이 종교 간의 분쟁을 야기하고 세계 평화를 위협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때문에 21세기에도 종교는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으면서 동시에 정보통신이 가치관 부재로 말미암아 전염병처럼 세계를 병들게 할 수 있는 위험에서 인간과 사회, 인류를 구하기 위해 참으로 열린 마음으로 진리와 정의, 사랑에 사는 종교가 되어야 하겠다. 자기 종교, 자기 종단, 단체 자체를 위한 종교가 아니고 남을 위한 종교, 인간애, 형제애를 증진시킴으로써 사회와 인류의 평화를 이룩하는 데 봉사하는 종교가 되어야겠다.²⁶⁾

1997년 북한 식량위기를 염려하는 각계 인사들의 모임에서도 인간존엄성에 대한 추기경의 강조는 계속된다.²⁷⁾ 갈라진 이 땅을 사랑으로 하나 되게 변화시키자고 호소하는가 하면, 통일의 길은 바로 굶주리는 북한동포를 사랑으로 돕는 데에서 시작된다고 힘주어

25) 『2000년대를 바라보며 - 정직하고 성실하자』, 종교지도자 초청 심포지엄, 신라호텔, 1992년 10월 27일, 『전집』, 13-2.

26) 『사랑이 가장 중요합니다』, 『원광』인터뷰, 1997년 4월 16일, 『전집』, 16-4.

27) 『갈라진 이 땅을 사랑으로 하나 되게 변화시킵시다』, 북한 식량위기를 염려하는 각계 인사 만찬 인사말, 《가톨릭신문》, 1997년 4월 20일자, 『전집』, 12-5.

말한다.²⁸⁾ IMF 경제위기가 발생한 직후 종교지도자들을 필두로 이어진 금모으기 운동을 주도하면서도 이러한 위기를 인간 사랑을 회복하는 전화위복(轉禍爲福)의 기회로 삼자고 호소한다.²⁹⁾ 당시 한국종교인평화회의 회장을 맡고 있던 김몽은 신부, 개신교 강원용 목사, 불교 송월주 조계종 총무원장, 원불교 조정근 교정원장, 유교 최근덕 성균관장, 천도교 김광옥 교령과 함께 김수환 추기경은 천주교 대표의 자격으로 온 국민에게, 각계각층의 인사들에게 술선수범을 통하여 국난을 극복하자는 호소문을 공동으로 발표하기도 하였다.³⁰⁾ 곧 이어서 한국 3대종교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김수환 추기경, 송월주 스님, 강원용 목사는 실업극복국민운동 공동위원장이라는 명의로 이웃사랑을 위한 연대감으로 실업을 극복하기 위한 국민운동을 제안하였다.³¹⁾

1999년 크리스찬 아카데미에서 개최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동북아시아 국제평화 회의’에서는 기조강연에서, 추기경은 세계정세를 섭렵한 이후, 한반도 평화의 기본 방향은 바로 ‘은 국민이 참여하는 화해, 협력, 평화’라고 갈파한다.³²⁾ 2000년도에 한국종교인평화회의가 주최한 종교청년 문화축제에서 김추기경은 축사를 하였다. 여기에서 그는 종교간 화해와 협력을 위해 애써 온 한국종교인평화회의가 새로운 기획으로 제1회 ‘밀레니엄 2000 종교청년 문화축제’를 개최하게 된 것을 축하하면서, “새천년 평화의 물결이 한국에서 세계로” 뻗어나가기를 기원하였다.³³⁾

원불교 교무 출신인 김팔곤 교수는 한국의 종교간 대화와 협력이라는 분야에서 김수환 추기경이 이룩한 업적의 의미와 그에 뒤이은 김몽은 신부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천주교 측의] 종교일치운동에 상징적 의미를 제시한 분이 김수환 추기경이었다고 한다면, 그 의미를 한국 사회의 현실에 맞도록 구체적으로 실현한 분이 바로 김몽은 신부님이다.”³⁴⁾

28) 「통일의 길 사랑의 길」, 북한 돕기 초청강연, 전북 전주 원불교회관, 1997년 6월 13일, 『전집』, 12-5.

29) 「금 모으기 운동을 시작하며」, 금모으기 운동 선포식, YWCA, 1998년 1월 12일, 『전집』, 13-3. 당시 한 자리에 있던 송월주 스님의 2014년 1월 23일자 증언에 의하면, 김추기경은 이 때 커다란 주교용 목걸이 금 십자가를 내어놓았다고 한다. 모두들 놀라고 있을 때, 스님이 나서서 성물을 내놓는 걸 만류하니 김추기경이 대답하기를 “내가 믿는 예수는 인류를 위하여 온 몸을 내놓았는데, 십자가 하나야 뭐 괜찮습니다.”라고 담담하게 말하였다고 한다. 김수환추기경연구소 편, 『종교 간 열린 만남을 주도한 김수환 추기경, 송월주 스님 인터뷰. 박일영 대담』, 『그리운 김수환 추기경』제2권(부천: 김수환추기경연구소, 2014), 179-180쪽.

30) 「술선수범하는 고통분담과 대타협으로 국난을 극복합시다」, 국민에게 드리는 호소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실, 1998년 6월 3일, 『전집』, 13-3.

31) 「이웃사랑을 위한 연대」, 실업극복 국민운동 발기문, 1998년 6월 23일, 『전집』, 13-3.

32) 「남북화해를 통한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시아」, 한반도 평화를 위한 동북아시아 국제평화회의의 기조강연, 수유리 크리스찬 아카데미, 1999년 4월 20일, 『전집』, 13-6.

33) 「새천년 평화의 물결이 한국에서 세계로」, 밀레니엄 2000 종교청년문화축제 축사, 한국종교인평화회의, 2000년 9월 15일, 『전집』, 9-9.

34) 김팔곤, 「종교 간의 대화와 협력을 위해 앞장선 선각자 김몽은 신부님」, 김몽은 신부 추모집 편찬위원회 편, 『달릴 길을 다 마쳤으니』(서울: 문선기획, 2006), 161쪽.

Ⅲ. 김몽은 신부와 이웃종교

현대 한국 천주교에서 종교 간 대화의 기틀을 놓고, 실질적인 면에서 이웃종교인들과 늘 교류하는 데 앞장섰던 인물을 꼽으라면 김몽은 신부를 첫손가락에 꼽아야 할 것이다. 김몽은 신부는 이웃종교와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하여 열정적으로 애쓴 대표적인 가톨릭계 선각자 중 한 사람이다. 1965년 결성된 ‘종교간 대화를 위한 6대 종교협의회’³⁵⁾에 가톨릭 측 대표로 참가하면서부터 김몽은 신부는 한국에서 이루어진 종교간 대화에 가톨릭을 대표하는 인물이었다. 당시 천주교 서울대교구장이었던 노기남 대주교(1902-1984)가 천주교 측 담당자로 김몽은 신부를 선임했던 것이다. 그 이후 김신부는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40여 년에 걸쳐 종교 간의 격의 없는 대화와 실질적 협력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김신부님은 사회학을 전공해서 그런지 몰라도 사회윤리나 시민정신 등에 관심이 많았고, 특히 이데올로기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했다. ‘미래의 전쟁은 종교전쟁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 종교일치를 위해 힘쓰고, 다른 종교와 지금부터 머리를 맞대고 인간관계를 맺으면 서로 좋은 거야.’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몸소 그 길을 따랐다.”³⁶⁾

1. 종교간 대화의 초석을 놓는 활동

현대적 의미에서 한국의 종교간 대화운동은 1960년대 중반 크리스천 아카데미를 설립한 기독교장로회 소속의 강원용 목사(1917-2006)에 의하여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때부터 김몽은 신부는 강원용 목사와 함께 가톨릭과 개신교를 중심으로 한국에서 종교간 대화와 협력을 이끌어가는 중추적 역할을 이어나갔다. 그와 같은 인연으로 김신부는 1966년 아카데미하우스 운영위원 겸 발전위원을 맡기도 하였다.

크리스천 아카데미를 통한 종교간 대화운동은 노동자, 농민, 학생, 정치인, 종교인 등을 대상으로 폭넓게 전개되었다. 이러한 운동을 통하여 크리스천 아카데미의 활동에 참여한 이들은 성숙한 시민사회를 형성하는 바탕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김몽은 신부가 가톨릭교회 안팎에서 다양한 활동을 벌여 나갈 수 있었던 데에는 이처럼 폭넓은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여러 종교의 지도자급 인사들과 유대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김신부가 종교간 대화운동에 가담한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초까지는 당시 서울 대학교 종교학과 교수로 재임하고 있던 박양운 신부를 돕는 역할에 머물렀다. 1970년대

35) 1966년에 ‘한국종교인협회’로 개칭.

36) 김정수, 『너무나 인간적이었던 김몽은 신부님을 추모하며』, 김몽은 신부 추모집 편찬위원회 편, 앞의 책, 15쪽.

박신부가 한국에서의 종교대화운동에서 손을 떼고 해외로 출국한 이후로는, 김몽은 신부가 가톨릭을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거의 유일한 인물이 되었다. 다음의 인용문에서 보면, 김몽은 신부가 이미 1970년에 적극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의 대화 모임에 참석하여 가톨릭을 대표 내지 대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970년에는 5월부터 매월 종교 지도자들이 모임을 가졌다. 현재 남은 자료가 빈약해 그 모임의 대화 주제나 성격을 자세히 알 수 없으나, 모임 명칭 그대로 각 종교의 지도자급 인사 한 두 분이 대표로 참석해 공동의 주제를 놓고 대화하는 작은 모임으로 추정된다. 그 모임에 천도교의 임문호, 배호길, 유교의 양대연, 불교의 범정, 가톨릭의 김몽은, 개신교 한완상, 정하은, 원불교의 유병덕 등이 정기적으로 참석했다.”³⁷⁾ (밑줄 필자).

2. 종교연합기구를 대표하는 활동

한국의 종교간 대화와 협력운동은 1986년에 아시아종교인평화회의(ACRP) 제3차 총회를 서울에서 개최하게 되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된다. 1960년대 중반 시작된 종교간 대화운동은 개별 종교지도자들의 모임으로 출발하였었다. 그러다가 점차 각 종단을 대표하는 ‘종교협의회’로 발전되어 나갔다. 종교계 전체를 아우르는 대화 채널을 형성한 것이다.

그러던 중 마침 서울에 유치하게 된 아시아종교인평화회의의 제3차 총회를 계기로 하여 종교대화운동이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게 된 것이다. 그 결과 결성하게 된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는 김몽은 신부가 종교간 대화 활동에서 주도적인 활약을 하도록 장을 마련하게 된 셈이다. 1978년에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 아시아종교인평화회의의 2차 총회는 한국종교인평화회의의 발족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뉴델리 총회에는 김수환 추기경이 참석하여 의장단에 선출되었고, 서울을 제3차 총회 개최지로 의결하였다.

서울이 아시아종교인평화회의의 제3차 총회 개최지로 결정됨에 따라 한국 종교계는 이를 준비하는 과정을 마련하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1985년에 세계종교인평화회의의 한국위원회가 결성된다. 김수환 추기경 등 각 종단의 최고 수장들을 고문으로, 강원용 목사를 위원장으로, 김몽은 신부 등을 부위원장으로 임원진을 구성하였다. 1986년 서울에서 개최된 ACRP 제3차 총회는 ‘아시아에서의 평화의 가교’를 테마로 설정하였다. 김수환 추기경이 의장을 맡아서 환영사를 하였다.

아시아종교인평화회의의 서울 총회를 성공리에 마친 세계종교인평화회의의 한국위원회는 명칭을 한국종교인평화회의로 바꾸고, 공식적인 종단 간 협력기구로 재출범시켰다. 1, 2대 회장은 강원용 목사, 3대와 4대 회장은 김몽은 신부가 역임하면서 종교 간의 이해와 협력을 위하여 힘을 기울였다. 5대 회장은 고산 조계종 총무원장, 6대는 최창규 성균관장, 7

37) 변진홍, 『김몽은 신부의 삶과 영성』, 위의 책, 218쪽.

대는 백도웅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8대 회장은 김희중 천주교 광주대교구장이 역임하였고, 9대 회장은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이 맡아서 이끌어 오고 있다.

김몽은 신부가 한국종교인평화회의 회장을 맡은 동안에[1992-1998] 그는 특유의 친화력으로 여러 종단의 수장들과 인간적인 교류를 증진하였다. 한국의 종교간 대화운동을 사무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서로 이웃종교에 대한 친밀감을 느끼는 공동체적 관계 형성의 길로 이끌었다. 이러한 모습은 김신부를 만나본 여러 종교의 지도자들이 이구동성으로 기억하는 내용이다. 식사 자리에서 그는 늘 미사용 포도주[미사주]를 권하며 유쾌한 자리를 만들었다. 그를 기억하는 인물들이 ‘김몽은 신부하면 바로 포도주’를 떠올릴 만큼 친밀감을 이루었던 것이다.

“KCRP(한국종교인평화회의) 회의에 참여하면 ‘마주앙’ 술 한 잔 나누면서 담배 한 대 피우면서 조금도 부담감 없이 마음 놓고 무슨 말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이루어 주시던 그 모습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³⁸⁾

그의 회장 재임 시기 중요한 행사로는 1993년 ‘시카고 종교의회 100주년’ 행사를 들 수 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범종교대회로 기록되어있는 1893년 시카고에서 개최된 세계종교의회(World Parliament of Religions)의 백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준비하면서, 종교간 대화운동의 시대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중요한 작업을 했다. 세계종교인평화회의 공동의장이며 김몽은 신부와 동갑인 스위스 출신의 세계적인 종교학자 한스 쿡(Hans Küng 1927-)은 모든 종교인들이 인류의 평화를 위하여 공동의 목표를 정하고, 함께 지켜나가야 할 지표로 ‘지구윤리’(Welt-Ethos; Global Ethic)를 제창하였다.³⁹⁾ 김몽은 신부가 이끌던 한국종교인평화회의에서는 ‘시카고 종교의회 10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한국에서 지구윤리의 의미와 그 실천 가능성에 대하여 가늠하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1997년 늦가을에 김몽은 신부는 70대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대종교에서 주관하는 개천절 선의식에 참여하고자 강화도 마니산 정상 참성단에 오르기도 하였다. 여기에서 그는 다음과 같은 요지의 축사를 하였다.⁴⁰⁾

민족의 성지 참성단에 여러 종교 관계자들이 한 마음으로 행사를 하게 되어 뜻 깊다. ‘홍익인간’이란 단군 성조의 뜻을 받들어 평화로운 인간세계를 개척하자는 의미라고 알고 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종교는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 인간중심이 아니라, 물

38) 임운길, 『김몽은 신부님은 참 좋은 분이었습니다』, 위의 책, 132쪽. 천도교의 최고 수장인 교령을 역임한 분의 회고담이다.

39) 한스 쿡, 안명옥 역, 『세계윤리구상』(철곡: 분도출판사, 1993) 참조.

40) 《대종교 선의식》[동영상 자료. 총 65분], 강화도 마니산, 1997년 11월 2일(음. 10월 3일). 이 중에서 김몽은 신부의 축사는 55분 30초~58분 45초에 담겨 있다. 대종교에서는 원래의 전통을 살려서 음력 10월 3일에 개천절 선의식(제천의례)을 거행한다.

질중심으로 주객이 전도되었다. 단군 성조의 뜻을 받들어 여기 모인 모든 이들이 각자가 속한 종교에 관계없이 인간중심의 복지사회를 건설하는 일에 다 함께 하자. 그러한 자세가 바로 남북으로 갈라진 우리 민족이 하나 되는 기회까지도 만들어 주기를 기원한다.

한국 종교계의 이와 같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움직임에 주목한 정부에서는 1994년부터 한국종교인평화회의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협력하여 종교지도자 세미나를 여러 차례에 걸쳐 개최하였다.⁴¹⁾ 민족의 화해와 일치, 환경보호, 시민의식의 고양 등 사회적 이슈가 되는 문제들을 민관이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국론 수렴의 장으로 활용하였던 것이다. 그런가 하면, 1998년과 1999년에 김신부는 북한 측 조선종교인협의회(KCR)의 초청으로 평양을 방문하여 남북한 종교 간의 이해와 일치를 위하여도 노고를 아끼지 않았다. 특히 평안남도 강서 출신인 김신부로서는 수 십 년만의 고향 방문이라는 개인적인 감회도 컸던 것으로 보인다.

오랜 기간 이러한 그의 노력이 인정을 받아 1996년에는 원불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원광대학교에서 명예 철학박사 학위를 수여받았다. 1997년에는 정통적 의미의 종교라는 한정된 테두리를 벗어나 국무총리실 한민족연구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다. 2000년부터는 민족정기 선양협의회 공동대표로, 그리고 생을 마감하고 선종할 때까지는 세계종교연합 선도기구(URI, United Religions Initiative)의 자문위원으로도 경륜을 펼쳐 보였다.

3. 가톨릭종교문화연구원 설립을 통한 활동

김몽은 신부는 1997년 6월에 종교간 대화를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위하여 사단법인 가톨릭종교문화연구원을 창설하여 이사장 겸 원장으로서 의욕적인 활동가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여기에 참여한 연구위원들은 김희성 서강대 교수, 김경재 한신대 교수, 노길명 고려대 교수, 정병조 동국대 교수, 최근덕 성균관대 교수, 박일영 가톨릭대 교수 등으로 다양한 종단 출신의 중견 학자들을 대거 포함함으로써 탄탄한 종교대화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첫 번째 학술모임에 대만 출신의 세계적인 신학자 송천성(宋泉盛 1929-)을 초청하여, 국내 학자들과 심도 깊은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다.⁴²⁾ 두 번째 학술대회는 1999년 ‘21세기 한국 사회와 종교문화’를 주제로 개최되었다. 필자도 발표자로 참가하여, 가톨릭의 관

41) 1994년 제1회 종교지도자 세미나에서는 당시 서울대 종교학과 정진홍 교수가 ‘21세기 대비를 위한 종교인의 역할’이라는 제목의 기초강연을 하였으며, 김몽은 신부가 회장으로 재임하던 시기에만 국한하더라도 5번의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한국종교인평화회의의 편, 『한국종교대화총람』개정판(한국종교인평화회의, 2014), 240-247쪽 참조.

42) 宋泉盛, 박광수 역, 성엄 감수, 『하느님의 영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아시아인의 심성과 종교문화. 가톨릭종교문화연구원 창립기념 국제학술회의자료집』(서울: 서강대학교, 1997년 6월 20일), 37-92쪽.

점에서 한국 종교계가 도전하고 대응해야 할 과제를 분석하였다.⁴³⁾ 2000년 세 번째 학술 대회에서는 유럽의 대표적인 종교학자인 스위스의 프리들리(Richard Friedli 1937-) 교수를 초빙함으로써, 국내에 아직 생소한 유럽의 종교학 연구동향 및 종교간 대화와 협력운동에 관하여 생생한 정보를 교류하고, 시야를 넓히는 일에도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주었다.⁴⁴⁾ 2002년 가을 연구원 창립 5주년 심포지엄에서는 주제를 ‘한국의 샤머니즘과 종교간 대화 - 이론과 실제’로 삼았다.⁴⁵⁾ 한국종교의 지도자들과 전문 학자들을 서울 시내 특급 호텔에 초빙한 자리에서 국가 지정 무형문화재 서해안 대동굿 기능보유자인 김금화(1931-)의 황해도 굿을 시연하게 함으로써, 천주교 사제로서 또 한국의 원로 종교지도자로서 진취적인 행보를 보였다.

이렇게 의욕적인 연구와 실천의 길을 제시하면서 활동을 전개하던 중, 2003년 이후 건강을 상하게 되어 연구원 활동은 침체되었다. 2004년 어느 정도 기운을 회복한 김신부는 연구원 활동을 재개하기 위하여 연구위원회의를 소집하고, 창립 7주년 기념 세미나와 문화행사를 2004년 12월로 계획하였다. 김신부 스스로도 논문을 발표하기 위하여 ‘창조적 평화실현을 위한 종교인의 과제’를 집필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행사를 1개월 앞둔 11월 8일 밤, 그는 원고를 집필하던 책상에서 그대로 세상을 등지고 말았다. 예기치 않은 그의 갑작스런 선종(善終)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다양한 종단과 종파의 지도자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였으며, 많은 연구자들과 종교인들이 그의 든든한 지원과 지도를 더 이상 받을 수 없음을 아쉬움을 토로하였다. 그의 유고 ‘창조적 평화실현을 위한 종교인의 과제’에서 그는 이렇게 적고 있었다.

“모든 존재에 대한 외경(畏敬)과 자신의 내면에 잠재해 있는 생명력의 활성화를 가져오는 창조적인 평화만이 전정 인류가 원하는 평화이며, 하느님이 그렇게도 바라시는 평화라고 확신한다.”⁴⁶⁾

43) 박일영, 『새 천년, 새 세기를 맞이하는 한국의 가톨릭문화』, 『21세기 한국사회의 종교문화. 가톨릭종교문화연구원 제2회 학술세미나 자료집』(서울: 조선평화, 1999년 1월 21일), 57-65쪽.

44) R. 프리들리, 김영경 역, 『새로운 천년과 유럽에서의 평화 - 종교들의 역할』, 『새천년과 평화. 종교의 역할. 가톨릭종교문화연구원 제3회 국제학술세미나 자료집』(서울: 조선평화, 2000년 6월 1일), 7-62쪽.

45) 김몽은, 『한국의 샤머니즘과 종교간 대화』, 『한국의 샤머니즘과 종교간 대화. 이론과 실제. 가톨릭종교문화연구원 제4회 학술세미나 자료집』(서울: 조선평화, 2002년 10월 17일), 7-8쪽; 황필호, 『한국 무교의 네 가지 문제점』, 위의 책, 9-26쪽; 박일영, 『무교적 관점에서 본 종교간 대화 - 그리스도교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위의 책, 27-49쪽.

46) 변진홍, 앞의 글, 237쪽에서 재인용. 평화에 대한 김몽은 신부의 관심은 이미 오래 전부터 표출되고 있었다. 김몽은, 『새천년 평화를 향하여』, 『새천년과 평화. 종교의 역할. 가톨릭종교문화연구원 제3회 국제학술세미나 자료집』(서울: 조선평화, 2000년 6월 1일), 1-2쪽.

Ⅳ. 김수환추기경과 김봉은 신부가 보여주는 종교간 대화의 전망

현대인은 여전히 정치적으로 위협스러운 긴장과 문화적으로 다극화 현상이 나타나는 세상 속에 살고 있다. 그 결과 상호 존중과 협력이 없으면, 인류는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다.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이 저마다 내세우는 말은 사랑과 자비와 어짐(仁)이지만, 그 종교들이 바로 역사 속에서 증오와 대립과 전쟁을 지지하고 유발하지 않았는가? 종교들이 저마다 다른 신앙, 교리들을 가지고 마음의 장벽을 쌓고 있기에, 종교들 간에 진정한 대화란 천진난만한 환상이 되고 마는 것이 아닌가라고 많은 사람들은 우려한다. 사실 우리는 많은 종교와 이데올로기들이 제각기 양산해 내는 독단주의(dogmatism)에 의하여 평화가 깨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기도 하다.

20세기 이전 과거의 전쟁은 영토 분쟁 내지는 민족주의적 갈등이었다. 한동안 세간의 주목을 끌었던 새뮤얼 헌팅턴에 따르면, 21세기에는 다음의 세 가지 취약 분야에서 문명의 대결과 충돌이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첫째, 서양과 비서양 사이의 균열; 둘째, 서구와 동구 즉 프로테스탄트의 영향권과 가톨릭 혹은 정교회 사이에 벌어질 수 있는 충돌 가능성; 셋째, 범 기독교계 대 이슬람 연합권의 대립.⁴⁷⁾ 그러나 김봉은 신부의 초청으로 2000년도에 한국을 방문하였던 스위스의 종교학자 프리들리(Richard Friedli)는 헌팅턴의 이러한 분류에 대하여 피상적인 전제라고 반응하면서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어디든 이슬람이 출현한 곳에서는 피비린내 나는 전선이 형성되었다는 단정을 통하여, 이런 식으로 세계를 가위질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이다.”⁴⁸⁾ 이와 같이 위험천만한 오류를 범하지 않으려면, 보편타당한 진리를 추구하는 모든 종교에 대해 객관적인 접근과 이해가 필요하게 된다. 그럴 때에 종교는 분쟁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종교 본연의 기능을 찾게 된다.

불교학자 정병조의 주장에 의하면, 종교들이 권위의식을 배제하고 협동할 수 있는 원리가 분명히 있다. 첫째, 수평적 사고로의 전환이다. 우월과 열등의 논쟁은 무의미하다. 모든 존재는 본질적으로 당위성을 갖는다. 둘째, 세상의 모든 존재는 상호 대립적이 아니라 상호 의존적이다. 셋째, 조화와 협력의 원리이다. 경쟁만이 능사는 아니다. 공동선을 추구하기 위한 노력, 서로의 값진 경험을 나누며 사는 것이 요구된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모든 종교의 차별성이 무시된 하나의 종교공동체를 이루려는 것은 아니다. 서로를 섬멸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존과 상생의 입장을 정착하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공동적 인식이야말로 21세기 종교의 목표여야 하며, 그러한 진리의 길을 함께 나란히 걷는 도반(道伴)으로서 이웃 종교들 간의 협력은 절실히 요구된다.⁴⁹⁾

47) 새뮤얼 헌팅턴, 이희재 역, 『문명의 충돌. 이제 세계 질서 재편의 핵심 변수는 문명이다』(서울: 김영사, 1997) 참조.

48) R. 프리들리, 앞의 글(2000), 9쪽.

종교 간의 만남은 순수 철학적 모임이 아니고 지적 유희를 위한 모임도 아니다. 언어나 교리가 다르다고 해서 자신의 신앙과 본질이 다르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며 진정한 인격적 만남이 있어야 한다. 궁극성 안에서 참된 인간으로서의 만남을 시도하여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현 시대에는 인류의 지혜를 모으는 자세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철학도 필요하고 신학도 필요하다. 종교학을 비롯한 인문학의 유용성은 이러한 효과의 창출에서부터 찾아져야 한다. 그렇기에 인간의 인간화라는 과제로부터 아무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인간 모두가 함께 안고 있는 이러한 과제 앞에 그 어떤 인간의 전통도 침묵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어떤 이해관계를 전제하지 않고 종교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은 가장 본질적인 종교적 행위의 하나이다. 이런 맥락에서 ‘진리의 보편성’을 찾아낼 수 있다. 진리의 한 조각만을 얻고 나서 그것이 절대 유일의 진리인양 착각하거나 오해를 하고, 또 그런 위험한 사고로부터 온갖 혼란스런 상황을 연출해 내는 편협한 종교인들은, 김수환 추기경과 김몽은 신부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종교와 세상을 좀 더 넓고 깊게 보아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현대 세계의 종교인들이야말로 마음을 개방해야 한다. 엄밀한 의미에서 어떤 종교에 대하여 완전하게 객관화를 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객관적이고 보편적이게 하기 위한 노력은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특정 종교의 외부에서 보아야 한다. 이웃종교의 요소를 적절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오히려 자신의 신앙내용을 더 깊게 해석하고 신앙 활동의 폭을 더 넓히는데 이바지 한다. 그러므로 종교들은 서로 간에 상대를 풍요롭게 해주어야 한다. 그럴 때에 개별 종교들 역시 새롭게 창조적이고 역동성을 갖는 종교가 될 것이다.

김수환 추기경의 말처럼, 이 땅의 종교들은 민중을 밥으로 여겨 먹여치우는 종교로부터 회두(回頭)하고 회심(回心)하여 민중에게 먹히는 종교, ‘밥이 되어주는 종교’로 체질 개선을 해야 할 때이다.⁴⁹⁾ 그리스도교식으로 말하자면, 편견과 오해를 무기삼아 억지로 내 종교 내 생각을 강요하는 ‘십자군’이 아니라, 나를 바쳐 온 인류를 화해시키는 도구로써 ‘십자가’야말로 본래 예수가 마음먹은 인류 사랑의 정신을 드러내 보여주는 표지라는 말이다.

선교(宣敎 mission)는 본래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 파견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일이라고 현대 그리스도교 선교학은 말한다. ‘하느님이 모범을 보여준 전적인 인간-사랑’(phil-anthropia tou Theou)으로 이해되는 올바른 선교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가르침이 올바른 때[正敎, ortho-doxie]에야 실천도 제대로[正行, ortho-praxis] 되는 것이다. 가톨릭을 포함한 한국의 종교들이 종교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김수환 추기경과 김몽은 신부가 이미 본보기를 보여주었듯이, 이웃종교로서 진정한 소통

49) 정병조, 『문명의 충돌, 우연인가 필연인가?』, 『문명충돌의 위기와 종교』, 2001 하반기 이웃종교 이해강좌』(서울: 한국종교인평화회의, 2001년 12월 4일), 15-17쪽.

50) 『전집』제8권, 286-289쪽 참조.

과 화합의 자세를 가질 때 이 땅에는 진정한 의미에서 성숙하고 균형 잡힌 사회가 실현
될 것이라 기대하게 된다.

참고문헌

- 《가톨릭뉴스》, 2014년 8월 23일자. <http://www.cathnewskorea.com>
- 김몽은, 「새천년 평화를 향하여」, 『새천년과 평화. 종교의 역할. 가톨릭종교문화연구원 제3회 국제학술세미나 자료집』, 서울: 조선평화, 2000년 6월 1일.
- 김몽은, 「한국의 샤머니즘과 종교간 대화」, 『한국의 샤머니즘과 종교간 대화. 이론과 실제. 가톨릭종교문화연구원 제4회 학술세미나 자료집』, 서울: 조선평화, 2002년 10월 17일.
- 김몽은 신부 추모집 편찬위원회 편, 『달릴 길을 다 마쳤으니』, 서울: 문선기획, 2006.
- 김수환추기경연구소 편, 『그리운 김수환 추기경』2, 부천: 김수환추기경연구소, 2014.
- 김수환추기경연구소 편, 『김수환추기경연구』1, 부천: 김수환추기경연구소, 2014.
- 김수환추기경전집편찬위원회 편, 『김수환추기경 전집』, 가톨릭신앙생활연구소, 2001.
- 《대중교 선의식》[동영상 자료. 총 65분], 강화도 마니산, 1997년 11월 2일.
- 〈도올의 논어 이야기〉, 《KBS1-TV》, 2001년 4월 24일자.
- 박일영, 「문화수용, 문화적응」, 『가톨릭대사전』5, 서울: 한국교회사연구소, 1997.
- 박일영, 「새 천년, 새 세기를 맞이하는 한국의 가톨릭문화」, 『21세기 한국사회의 종교문화. 가톨릭종교문화연구원 창립기념 국제학술회의자료집』, 서울: 조선평화, 1999년 1월 21일.
- 박일영, 「무교적 관점에서 본 종교간 대화 - 그리스도교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의 샤머니즘과 종교간 대화. 이론과 실제. 가톨릭종교문화연구원 제4회 학술세미나 자료집』, 서울: 조선평화, 2002년 10월 17일.
- 송천성(宋泉盛), 박광수 역, 「하느님의 영은 불고싶은 대로 분다」, 『아시아인의 심성과 종교문화. 가톨릭종교문화연구원 창립기념 국제학술회의자료집』, 서울: 서강대학교, 1997년 6월 20일.
- 정병조, 「문명의 충돌, 우연인가 필연인가?」, 『문명충돌의 위기와 종교. 2001 하반기 이웃종교 이해강좌』, 서울: 한국종교인평화회의, 2001년 12월 4일.
- 프리들리, R., 김영경 역, 「새로운 천년과 유럽에서의 평화 - 종교들의 역할」, 『새천년과 평화. 종교의 역할. 가톨릭종교문화연구원 제3회 국제학술세미나 자료집』, 서울: 조선평화, 2000년 6월 1일.
- 한국종교인평화회의 편, 『한국종교대화총람』개정판, 한국종교인평화회의, 2014.
- 황필호, 「한국 무교의 네 가지 문제점」, 『한국의 샤머니즘과 종교간 대화. 이론과 실제. 가톨릭종교문화연구원 제4회 학술세미나 자료집』, 서울: 조선평화, 2002년 10월 17일.
- Congar, Yves, "Theologische Grundlagen", in: Johannes Schütte, Mission nach dem Konzil. Mainz, 1967.
- Friedli, R., *Mission oder Demission*, 박일영 역, 『현대의 선교 - 선교인가 반선교인가』, 서울: 성바오로출판사, 1989.
- Huntington, Samuel, *Clash of Civilizations*, 이희재 역, 『문명의 충돌. 이제 세계 질서 재편의 핵심 변수는 문명이다』, 서울: 김영사, 1997.
- Küng, Hans, *Projekt Welt-Ethos*, 안명옥 역, 『세계윤리구상』, 칠곡: 분도출판사, 1993.
- Panikkar, Raimundo, *Intra-Religious Dialogue*, 김승철 역, 『종교 간의 대화』, 서울: 서광사, 1990.

원고접수일: 2014년 10월 30일 심사일: 2014년 12월 6일 게재확정일: 2014년 12월 23일
연구자소개: 박일영

- ① 전공: 종교학, 종교민속학 / 소속: 가톨릭대학교 종교학과
 - ② 관심영역: 한국종교, 종교간 대화
 - ③ 주요논저: 한국 무교의 이해, 한국 무교와 그리스도교, 김수환 추기경 연구 1
 - ④ E-mail: onezero@catholic.ac.kr
-

Abstract

Inter-Religious Dialogue in the Catholic Church of Korea Today: Centering on Stephen Cardinal Kim and Rev. Mong-Eun Kim

Park, Il Young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e task for inter-cultural communication and inter-religious cooperation is a kind of ‘incarnation of faith(incarnatio fidei)’ that approaches to the ortho-practice which bounds all human race in real world. This sort of practice shows the hope of universally open religiosity and crosses the boundary of specific religions and various types of culture. Mutual change is available through this kind of communicative process. Such open-minded spirituality could be called as ‘mutual mission’ among different religions. It is far beyond compared with so-called ‘one-way mission’ of close-minded stiff religions. In that case, finally, inter-cultural communication and inter-religious cooperation can be accomplished in the strict sense of the idea.

In this article is researched how such idea is perceived and tried to practice in the context of Catholic church in Korea. Concretely, it is scrutinized centering on Stephen Cardinal Kim who represents modern Catholic church of Korea and Rev. Mong-Eun Kim who was contemporary person of Cardinal Kim, and at the same time, practically dedicated for inter-religious dialogue and cooperation his whole life with extra-ordinary sense of duty.

Key words: Stephen Cardinal Kim, Rev. Mong-Eun Kim, the Catholic Church of Korea Today, Inter-Religious Dialogue, Mutual Mission